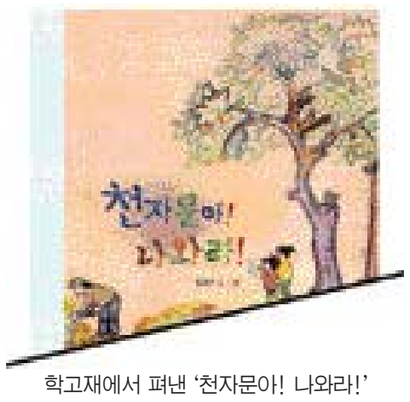

학고재에서 펴낸 '천자문아! 나와라!'

바느질 그림으로 동화 삽화를 제작하는 작가 정현주씨가 원화 작품 전시회가 열리고 있는 광주극장에서 포즈를 취했다. /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한땀 한땀 정성, 아이들 상상을 수놓다

'바느질 그림작가' 정현주씨 바느질 창작세계 선보여

천 활용한 동화책 삽화·인형 등 … 31일까지 광주극장

화가 정현주(46)씨는 국내에서 드문 '바느질 그림 작가'다. 다양한 천을 자르고 붙이고, 한땀 한땀 바느질을 통해 작품을 완성해 나간다. 양털을 물레에 걸어 직접 실을 잣고, 염색 작업도 한다.

정씨가 작업하는 것은 주로 동화책 삽화. 자신의 그림으로 아이들의 상상력에 날개를 날아준다. 그녀가 광주극장에서 오는 31일까지 동화책 원화 전시회를 열고 있다. 지난해 서울 샘터갤러리 초청으로 참여한 호텔 아트페어 참가작들이다. 이번 전시에서는 직접 만든 인형들도 함께 선보이고 있다.

홍익대 회화과와 대학원을 졸업한 정씨가 처음 동화 삽화를 그리기 시작한 것은 사촌 오빠인 동화 작가 故 정채봉씨와의 인연 덕분이다. 1989년 정작가의 '꽃그늘 환한 물'과 '오세암' 등에 삽화를 그렸고, 이후 김주영의 '멸치', 한승원의 '아제 아제 바라아제' 등 성인 소설의 일러스트레이션 작업을 진행했다.

지난 2007년부터 정씨는 기존의 삽화와는 달리 천을 활용한 바느질 작업으로 동화 삽화를 제작하고 있다. 시간과 노동력이 필요한 다소 고된 작업이지만 새로운 길을 개척하는 즐거움이 그만이다.

친정 아버지가 직물관련 회사를 운영한 덕에 어려서부터 자투리 천을 가지고 노는 게 익숙했고, 두 아이를 키우면서 회화 작업을 하기가 버거워 바느질로 눈을 돌렸다. 남편을 따라 미국에 잠시 머물면서 텍스타일을 공부할 기회가 있었던 것도 도움이 됐다.

스님에게서 받은 잿빛 승복 천 조각, 면, 레이스, 모시 등 다양한 질감의 천들이 모두 소재가 된다. 일일이 바느질을 하고 염색을 하고 자수를 놓아 삽화를 만든다. 실과 실이 얽히고, 천과 천이 어우러져 생각지 않은 효과를 만들어 낼 때는 작업 자체가 즐겁다.

정씨는 출판사에 바느질 그림 삽화를 제안했고 2007년 '샘터'에서 출간된 조선희의 '달 호수의 비밀'과 선안나의 '너, 나, 우리'가 그렇게 탄생했다.

"바느질 그림이 동화책 원화로 호응을 받은 게 아무래도 우리 정서와 맞기 때문인 것 같아요. 바느질 작업이 한 땀 한 땀 정성을을 들이는 거라 그 수고로움에 대한 호응이라 할 수 있죠. 또 어두운 밤 바느질을 하던 어머니에 대한 그리움 같은 것도 있구요."

정씨는 작업 세계를 확장중이다. 최근 출간된 '천자문아! 나와라!'(학고재 펴냄)는 삽화 뿐 아니라 글 작업도 직접 진행했다. 어릴 적부터 노래처럼 부르고 다니던 천자문에 대한 아이디어를 출판사에 직접 제안해 이뤄졌다. 학고재와는 현재 또 다른 작업도 진행중이다.

광주극장에서 한창인 전시에는 정씨가 직접 만든 인형들도 전시돼 있다. 아트페어에 참가할 때 많은 호응을 얻었던 인형이다. 정 씨는 현재 인형 제작과 관련된 책 작업도 준비하고 있다.

"천으로 작업을 하는 세계는 무궁무진해요. 이번 '천자문아! 나와라!'를 제작할 때부터는 책 스토리에 맞춰 천을 염색하고 실을 제작했죠. 앞으로는 직접 베를 짜 보려고 해요. 책 한권 낼 때마다 매번 새로운 기법을 시도해 보고 싶네요."

정씨는 광주극장과도 인연이 깊다. 프로젝트 그룹 '액트아트'를 통해 영화와 미문화가 어우러지는 다양한 이벤트를 열었다. '그림자 아트', '스웨덴 영화 보고 쿠기 만들기', '헤드윅 가발 만들기', '식목일 봄농사' 등을 진행했고, 바느질 그림으로 광주극장의 간판을 만들기도 했다.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문화전당 복합전시관에 무얼 담을까

亞문화중심도시 추진단 콘텐츠개발 국제워크숍 29일 서울 이화여대서

지난 2월 광주 매개공간 미나리에서 열린 복합전시관 전시콘텐츠 개발을 위한 제2차 정기포럼. 〈복합전시관 포럼위원회 제공〉

오는 2014년 건립되는 국립 아시아문화전당(이하 문화전당)내 복합전시관 콘텐츠 개발을 위한 토론의 장이 열린다.

문화체육관광부 아시아문화중심도시추진단(단장 이병훈)은 오는 29일 서울 이화여대 ECC 이삼봉홀에서 '더 새로운 실크로드를 향하여-아시아 문화허브로 가는 길'을 주제로 국제 워크숍을 갖는다. 이날 워크숍에서는 복합전시관에 전시할 예술·건축·인류학·박물관학·창의산업 등의 콘텐츠 개발을 위한 활발한 토론을 벌일 예정이다.

문화전당은 아시아 문화중심도시의 핵심시설로, 문화창조원, 아시아문화정보원, 민주평화교류원, 어린이문화원, 아시아예술극장 등이 들어서게 된다.

이 가운데 복합전시관은 문화창조원의 대표적인 시설이자 문화전당의 '창'(窓) 역할을 하게 된다. 6600㎡(2000여 평)의 전시면적과 20m 높이의 가변형 전시장으로 꾸며져 독자적 전시콘텐츠를 개발·전시하고, 자체 개발된 문화콘텐츠를 시험전시하는 신 개념의 공간이다.

이번 워크숍은 김성홍 서울시립대 건축학부 교수의 기조 발표에 이어 앤서니 셰턴(캐나다 브리티시 컬럼비아대 인류학 교수), 마리아 린트(미국 바드컬리지 큐레이터학연구센터 디렉터), 저스틴 오코너(호주 퀸즐랜드대 창의산업과 교수), 구로다 라이지(일본 후쿠오카 아시아미술관 학예연구실장) 등이 발제할 예정이다.

이번 국제 워그숍에 참여하는 발제자와 토론자는 '아시아 문화' 와 '신개념의 전시공간' '대안적 전시 모델' 등에 열정적 관심을 보여온 다양한 분야의 저명한 국내외 연구자들로 이번 발제와 토론은 아시아 문화의 지역 네트워크와 문화산업, 그리고 전시에 대한 새로운 비전을 제시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아시아문화중심도시추진단은 지난 2007년 조경만(목포대 인류학과) 교수 등 국내외 전문가 10인으로 구성된 복합전시관 포럼위원회를 구성, 다양한 연구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다. 지난 1월부터 5차례 광주와 서울에서 복합전시관 전시콘텐츠 개발을 위한 정기포럼 'MFEH R&D FORUM 2010'을 개최했으며 오는 6월12일 플래툰 쿤스트할레에서 전시기획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김대성기자 bigkim@kwangju.co.kr

젊은 뮤지션들 다 모여라

광주청소년음악페스티벌 참가팀 모집

지난해 창작곡 경연대회에서 대상을 수상한 '수트케이스'의 공연 모습.

오는 8월 20일~21일 이틀간 광주 염주종합체육관에서 열리는 2010 광주청소년음악페스티벌(GYMF)이 참가팀을 모집한다.

광주시와 광주시청소년단체협의회가 함께 진행하는 GYMF는 올해 5회 째 맞는 행사로 젊은 뮤지션 발굴을 목표로 하고 있다.

주최측은 페스티벌의 메인 행사인 '창작곡 경연대회' 참가팀을 모집한다.

참가 자격은 만 13세~ 24세로 순수창작곡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서류 마감은 7월 9일. 서류심사와 MP3 음원심사, 실기 예선 등을 통해 최대 10팀이 본선무대에 오르게 된다.

최종 선정된 5팀에게는 대상 500만원 등 총 상금 1200만원이 수여되며 본선 수상팀 앨범제작 및 9월 중 홍대 라이브 클럽에서 진행되는 쇼케이스에 참여하는 기회를 제공한다. 또 행사 기간 중 열리는 음악 캠프에도 참여할 수 있다.

'1318 음악 동아리 지원 사업' 참가자도 모집한다. 지난해까지 전국을 대상으로 진행했던 사업으로 올해는 지역 청소년들에게 혜택을 주기 위해 참가팀을 지역으로 제한했다.

1, 2차 예선을 통해 선발된 최종 10팀에게는 각 팀당 50만원의 지원금이 지급된다. 접수마감은 6월 4일이다.

동아리 지원사업을 통해 성장한 청소년 밴드 '달토끼'는 창작 지원 프로젝트 '에듀포엠'을 통해 지역에서 최초로 청소년 밴드가 창작곡을 바탕으로 한 공동앨범을 제작하는 성과를 이루기도 했다. www.gymf.or.kr. 문의 062-376-1324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예술꿈나무들과 함께 국악 한마당

광주시립국극단 27일 문예회관

광주시립국극단(단장 송순섭)이 청소년 유망주와 함께 하는 국악 한마당 행사를 갖는다. 27일 오후 7시30분 광주문예회관 소극장.

'그 미래를 보다'라는 주제로 열리는 이번 공연에는 각 학교에서 추천을 받은 예술 꿈나무들이 출연한다.

고아라(김천 아포중 2년)양은 호남우도 농악 가운데 부포 개인 놀이'를 선보이며 김소연·김석민(이상 광주예고 3년), 최지혜·오현정(이상 월계중 2년)양은 경기민요 '도라지 타령'을 모티브로 한 25현 가야금 '황금산의 백도라지'를 연주한다. 또 임한울(광주예고 3년) 양은 판소리 '수궁가' 중 '약성가' 부분을, 임한울(대성여고 3년)양은 한국 창작무용 '달의 잔영'을 무대에 올린다.

2부를 꾸미는 국극단 단원들은 흥겨운 남도민요 등을 선사한다. 문의 062-526-0363,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